

[일반 논문]

전국연극제 참가 작품 분석 연구

An Analytical Study on The Plays of the Korea Theatre Festival

- 공연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은경

(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글 | 3) 2001년~2007년 |
| 2. 전국연극제 참가작품 현황 | 3. 공연텍스트의 문제점 |
| 1) 1983년~1990년 | 4. 나가는 글 - 발전적 대안의 모색 |
| 2) 1991년~2000년 | |

1. 들어가는 글

‘지방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방연극의 진흥을 도모’¹⁾ 하고자 1983년 처음 시작된 전국연극제가 올해로 26회째를 맞았다. 전국연극제의 긍정적인 평가를 정리해 보면, 1) 지역연극의 수준 향상에 기여, 2) 시·도립극단의 창단과 국제연극제 확산에 기여, 3) 각 지역연극인들의 교류의 장, 4) 관객 연극인과의 이해증진 계기 제공, 5) 공연장의 확대에 기여, 6) 지역 관객의 문화적 인식 증진에 기여 7) 지역 대학에 연극학과 개설에 기여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연극제의 사회적 기여도가 아니라 공연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지난 25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공연텍스트인 희곡을 중심에 놓는다면 더욱 그러하다. 지역 희곡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2회 전국지방연극제 시행계획」, 《한국연극》 1984. 1.

작가의 발굴과 우리 희곡의 발전을 위해 처음부터 참가작품을 창작극으로 제한하고, 희곡상은 지역작가의 초연작만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다양한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연극제가 그 취지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25년의 전국연극제 참가작을 희곡 중심으로 검토하고 문체점을 지적하여,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국연극제 참가 작품 현황

제1회 전국연극제에는 12개 지역에서 참가하였는데, 장일홍(제주)의 〈파도야 어찌란 말이냐〉, 장성식(전북)의 〈완산곡〉, 윤조병(인천)의 〈도시의 나팔소리〉 외에는 모두 기성작가의 구작이었다. 세 작품 중에서도 윤조병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구성이 빈약하며,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지역 작가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이후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으며, 약간의 가감파 표현의 변화는 있지만 심사평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1) 1983년~1990년²⁾

이 시기 전국연극제에서 빈번하게 공연되는 작가군은 한정적이다. 1980년대에는 윤조병의 작품이 가장 빈번하게 공연되었다. 제5회를 제외하고는 매번 작품이 공연되었고, 제4회에는 두 작품이 한꺼번에 공연되기도 하였다. 윤조병은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위한 신작을 발표하여 〈도시의 나팔소리〉, 〈회파람새〉로 제1회와 제2회의 희곡상을 수상하고, 〈회파람새〉로 연출상을 수상하였으며, 제6회에는 금은동이란 필명으로 〈모듬내뽕부기〉를 쓰고, 연출하기도 하였다. 윤조병의 수상은 인천시립극단 창단 움직임

2) 시기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편의상 구분하였다. 전국연극제 참가작의 경우, 눈에 띄이는 변화의 기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보편적인 시기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임의 계기가 되었다.³⁾ 그의 작품은 〈도시의 나팔소리〉, 〈회파람새〉, 〈가솔기〉, 〈참새와 기관차〉, 〈모닥불 아침이슬〉, 〈고향의 봄〉, 〈모듬내뽕부기〉, 〈초승에서 그믐까지〉, 〈아버지의 침묵〉 총 9편이 공연되었다.

이 외에 주로 공연된 작가군은 아래와 같다.

- ◆김상열(7편, 〈철수야〉 〈귀향〉 〈배비장전〉 〈낙랑인 가라전〉 〈그대의 말일 뿐〉 〈서풍이 불어오면〉 〈애니깽〉)
- ◆이강백(5편, 〈알〉 〈봄날〉 〈칠산리〉 〈쥬라기의 사람들〉 〈칠산리〉)
- ◆이재현(5편, 〈매화전〉 〈전범자〉 〈멀고 긴 터널〉 〈바꼬지〉 〈비목〉)
- ◆최인훈(3편 4편, 〈둥둥 낙랑둥〉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 ◆김창일(3편, 〈갯바람〉 〈도시탈출〉 〈안개섬〉) *
- ◆노경식(3편, 〈소작지〉 〈달집〉 〈정읍사〉)
- ◆이상용(3편, 〈징소리〉 〈삼각파도〉 〈잃어버린 사람들〉) *
- ◆장일홍(3편, 〈파도야 어찌란 말이냐〉 〈인간은 인간에게 이리〉 〈귀향풀이〉) *
- ◆차범석(3편, 〈대지의 딸〉 〈불모지〉 〈산불〉)
- ◆강용준(2편, 〈이어 이어 이어도사나〉 〈잠수의 땅〉) *
- ◆유보상(2편, 〈이혼파티〉 〈비탈길〉) *
- ◆윤대성(2편, 〈땅나니〉, 〈노비문서〉)
- ◆이반(2편,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그 날 그 날에〉)
- ◆최현묵(2편, 〈저승 횡횡 건너가소〉 〈메아마이다〉) *

(* : 지역작가 작품들, 밑줄은 반복적으로 공연된 작품들)

이 시기 전국연극제를 통해 배출된 대표적인 지역작가로는 강용준(제주), 김창일(전남), 이상용(경남), 장일홍(제주), 최현묵(대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들은 2-3편의 신작을 내놓았으며, 특히 김창일은 제5회부터 제7회까지 〈

3) 1990년 6월 28일 창단된 인천시립극단의 초대 상임연출은 윤조병이었다. 특히 제2회 전국연극제 최우수상 수상작 〈회파람새〉는 인천의 전국연극제 참가를 위해 창작된 작품으로 '연극계의 빛나는 수확'(이태주, 『충격과 방황의 한국연극』, 현대미학사, 1999, p.482 참조)으로 평가되었다.

갯바람) <도시탈출> <안개섬>으로 연속적으로 희곡상을 수상하여 지역작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공연된 작품들 대다수는 이미 중앙문단에서 활동하는 기성작가의 구작이었다. 이는 이미 검증된 작품을 선택하여 희곡의 완성도를 보장받으려는 내부적 욕망과 기성작가의 신작이 지역연극을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역작가의 작품 대부분은 진부할 뿐만 아니라 수준미달의 작품들⁴⁾이었기에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해 차범석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 지방에 극작가가 모자라다는 뜻이기도 하려니와 대부분의 극단들이 아직도 안이하게 기성극작가의 작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지방연극이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극작가가 나와야 하고, 그 극작가에 의하여 발언이 있어야 옳을 것이다. ... 작품 선택에 임하는 단원들의 판단력과 의식의 문제이다. 기성작가의 작품일지라도 그것이 과연 공연해볼만한 가치가 있거나 소화시킬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⁵⁾

이 비판의 핵심은 능력 있는 지역작가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성작가의 작품일지라도 시대적 의미나 극단의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반복되자 제4회부터 지역출신 작가에 한하여 고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래의 표와 같이 지역작가의 참여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4) 급조된 제1회의 전국연극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제2회에도 '잘살기 운동의 기본이 무엇이며,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알려주려는 제작의도(《한국연극》 1984.6. p.80)를 표명한 계몽극 수준의 작품이 지역작가의 작품으로 참가하였으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5) 차범석, 「지방연극의 문제와 진로」, 《한국연극》 1985.7.

	기성작가	지역출신 작가
제1회	8	4
제2회	7	5
제3회	9	3
제4회	8	4
제5회	4	8
제6회	7	6
제7회	10	4
제8회	11	3

더구나 지역작가의 발굴에 중점을 둔 이러한 방침은 중앙작가가 지역연극을 위해 신작을 창작하는 경우를 더욱 제한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기에 지역연극의 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한다면 질적 향상을 위해 중앙작가가 지역연극을 위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게 되었다.⁶⁾

이 시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작 대부분은 지역연극을 위해 신작을 내놓은 윤조병의 경우와 제5회 최우수상 〈노인 새되어 날다〉(신태범 작, 부산), 우수상 〈갯바람〉(김창일, 전남)과 제8회 우수상 〈어떤 사람도 사라지지 않는다〉(최인석 작, 전남)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앙작가의 구작이었다. 전국연극제가 지역연극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지역연극이 취약한 현실에서 갑작스럽게 향토의식을 담은 개성적이며,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8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러한 현실의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실은 어쩌면 예정된 것이다. 연극에서 희곡의 완성도는 작품을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희곡이 좋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

6) 박조열, 「참가기 - 벽을 깨야 하는데」, 《한국연극》 1987.7. 참조.

도 있다. 부족한 지역작가의 희곡을 선택하는 것이나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류에 편승한 중앙 작가의 인기 작품을 선택하는 것 모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더해 연출이나 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제4회 지방연극제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는 작품을 선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출가의 힘이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⁷⁾

이번 연극제는 역량 있는 배우나 연출가의 부재로 인해 각 지방마다 현저한 격차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⁸⁾

지역작가의 부재에 더해 지역 연출가나 배우까지 부재하다는 현실인식이 전국연극제에 위기의식을 불어넣는다. 이 시기 참가작의 주류는 리얼리즘극이었다. 또 수상작 대부분도 리얼리즘 작품이다. 지역연극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험극을 하기 보다는 기본을 중요시 하는 리얼리즘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리얼리즘적 관습만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 향토연극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지만 향토연극에 대한 물이해와 객관적 관점의 부족으로 개성적인 작품이 등장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언어전달을 방해한 지나친 로컬리즘’⁹⁾이 제기될 정도로 사투리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무당춤, 사물놀이, 판소리 등 상투적, 아류적 표현 수준에 머물러 개연성이 없으며’¹⁰⁾ ‘방언의 남용과 설화나 인물을 어설프게 미화’¹¹⁾하는 작품이 향토색을 갖춘 작품으로 오인되어 공연되었다.

7) 허영, 「지방연극제 총평」, 《한국연극》 1986.6.

8) 김길수, 「총평 - 틀거리의 다원화와 실험적 연출술」, 《한국연극》 1987.7.

9) 허영, 위의 글.

10) 박조열, 위의 글.

11) 박조열, 위의 글.

2) 1991년~2000년

이 시기 역시 참가작의 중심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기성작가의 구작이었다. 가장 빈번하게 작품이 공연된 작가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이강백 : 6편 10번 <봄날> <쥬라기의 사람들> <칠산리> <영월행일기> <느낌극락같은> <뽕와 살>
- ◆ 이만희 : 3편 8번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피고지고 피고지고> <돼지와 오토바이>
- ◆ 김상열 : 5편 6번 <님의 침묵> <등신과 머저리> <언쟁이 곡마단> <길> <탈의 소리>
- ◆ 노경식 : 5편 <달집> <하늘 만큼 먼 나라> <춤추는 풀벌> <상록수> <천년의 바람>
- ◆ 정복근 : 3편 4번 <지킴이> <독배> <실비명>
- ◆ 강용준 : 3편 <줄네> <우리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폭풍의 바다> *
- ◆ 김창일 : 3편 <꽃머느리> <붉은 노을 속에 허수아비로 남아> <역마살> *
- ◆ 송연근 : 3편 <떠도는 땅> <야생초> <아름다운 귀향> *
- ◆ 윤조병 : 2편 3번 <초승에서 그믐까지> <풍금소리>
- ◆ 최송림 : 3편 <목걸이와 올가미> <에케호모> <노르마> *
- ◆ 최현묵 : 3편 <뜨거운 땅> <또, 해피엔딩> <상화와 상화>
- ◆ 황석영 : 3편 <삼포 가는 길> <한씨 연대기> <산국>
- ◆ 김광림 : 2편 <사랑을 찾아서> <날 보러와요>
- ◆ 조일도 : 2편 <머리고 간 노래> <왕에게>
- ◆ 차범석 : 2편 <산불> <청계마을의 우화>
- ◆ 최인훈 : 2편 <봄이 오면 산에 들에> <둥둥 낙랑둥>

이 작가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만희의 작품, 특히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5번이나 반복적으로 공연되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이 서울연극제 작품상을 수상한 이후에 공연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

국연극제가 서울연극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독자적인 자생보다 답습을 반복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¹²⁾ 또한 일부 작가의 같은 작품이 동시에 공연되는 빈도가 높아진 것도 이 시기에 드러난 현상이었다. 이 역시 지역극단이 자신들의 취향이나 능력보다는 중앙의 흐름이나 유행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11회와 제14회에는 이만희의 <그것은...>을 2개 지역극단이 공연하였고, 제17회에는 이강백의 <느낌, 극락같은>을 2개 지역극단이 공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시 이강백의 <영월행 일기>(뻘와 살)이 한꺼번에 공연되어 15개의 공연작 중 한 작가의 작품이 4편이나 되었다. 이 작품들 모두 서울연극제 수상 후 전국연극제에서의 공연이 빈번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이 시기 여성작가인 정복근의 작품이 4편이나 공연된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시기 중앙에서 여성작가의 활동이 활발¹³⁾해지면서 공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중앙의 연극적 상황의 변화를 지역연극이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서울 흥행작에만 관심을 두고 감각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다¹⁴⁾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전국연극제가 지역연극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연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지역연극의 자생력을 키워가기 보다는 중앙의 연극경향을 수동적으로 모방,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작가인 강용준, 김창일, 최현묵(이미 중앙으로까지 활동영역을 키워가고 있음)이 계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이에 송연근(전남)이 활동이 더해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역작가의 작품빈도는 여전히 빈약하였다.

수상작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앙작가의 구작이 15편(<피고지고 피고지고>의 2회 수상으로 16번 공연), 지역작가의 초연작이 14편으로 편수에 있어서는 균

12) 국미경, 「『전국연극제』에 관한 분석적 연구 : 1983-2003」,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4.8. p.36.

13) 이 시기 정복근 외에도 김숙현, 전옥주 등 여성작가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고, 연극 <위기의 여자>(1986)의 성공 이후 여성연극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였다.

14) 심재찬의 대담, 「자유참가제의 도입과 분산교체 문제 - 전국연극제의 어제와 오늘」, 《한국연극》, 2000.6.

형을 잡은 것으로 보여 지역작가의 작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11회에는 지역작가의 순수 창작품으로 광병창의 〈꼭두 꼭두〉(전북)만이 참가하여 회곡상 수상자를 내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에도 역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향토회곡의 빈약이 문제가 되었다.

이 시기는 전 시기보다 지역 간의 격차가 줄면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하지만 여전히 작품경향은 리얼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곡의 선정에 신중하지 못하며, 개성을 찾을 수 없는 연출과 무대 스태프의 미숙으로 인한 완성도의 부족 등 공연 전 분야에 대한 비판 역시 계속되었다.

3) 2001년~2007년

이 시기 역시 참가작 대부분이 중앙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구작으로 원래의 목표이던 지역창작극 진흥이라는 의도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신선감도 떨어졌다.

이 시기 대표적으로 공연된 작가군은 아래와 같다.

- ◆ 김태수 : 4편 8편 〈꽃마차는 달려간다〉〈해가 지면 달이 뜨고〉〈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나비는 천년을 꿈꾼다〉
- ◆ 엄인희 : 1편 5편 〈그 여자의 소설(작은 어머니)〉
- ◆ 이강백 : 5편 〈뺨와 살〉〈물고기 남자〉〈진땀흘리기〉〈북어대가리〉〈칠산리〉
- ◆ 오테영 : 3편 〈꽃잎 저서 피〉〈돼지 비계〉〈조통면옥〉
- ◆ 이근삼 : 3편 〈유랑극단〉〈아카시아 흰 꽃은 바람에 날리고〉〈오코치의 화려한 가출〉
- ◆ 이윤택 : 3편 〈문제적 인간 연산〉〈불의 가면〉〈아름다운 남자〉
- ◆ 김태웅 : 1편 3편 〈이〉
- ◆ 고연옥 : 1편 2편 〈인류최초의 키스〉
- ◆ 김광림 : 1편 2편 〈날 보러와요〉
- ◆ 박근형 : 2편 〈선착장에서〉〈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 ◆ 오태석 : 2편 〈부자유친〉(천년의 수인)
- ◆ 이만희 : 1편 2번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 ◆ 이상우 : 2편 〈칠수와 만수〉(돼지사냥)

이 시기 특히 주목할 점은 제20회에서 김태수의 〈꽃마차는 달려간다〉를 동시에 3개 극단이 공연했을 뿐만 아니라 김태수의 〈해가 지면 달이 뜨고〉까지 공연되어 총 16개의 공연작 중 한 작가의 작품이 4편이나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지역연극계의 작품선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정 작가와 작품에 편중되는 경향은 이 시기에 이르러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 지역작가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전에만 해도 지역작가의 작품이 여러 편 공연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특정 지역작가의 작품은 1편 이상 공연되지 않고 있다.

이 시기 수상작을 살펴보면 지역작가의 초연작은 제21회의 〈상봉〉(최기우 작, 전북), 〈천도헌향가〉(국민성 작, 충남), 제22회의 〈땅과 새〉(김정수 작, 전북), 제23회의 〈귀신고래(회유해면)〉(박용하 작, 울산) 〈도서관 가는 길〉(이소연 작, 대구) 〈이화우 흘날릴 제〉(최정 작, 전북), 제24회의 〈사슴아 사슴아〉(오성근 작, 인천) 〈PLAY5〉(김지용 작, 부산), 제25회의 〈직지, 그 끝없는 인연〉(공동창작, 충북) 정도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참가작들에 대한 평가 역시 호의적이지 않았다. 전국연극제가 지역연극의 고른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질적 향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지역연극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지역연극의 현실을 더 열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조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연극제 때마다 매번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또 다시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만큼 지역 연극인들이 자신의 예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지역연극이 서울 연극의 변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한국연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연극인들의 좀 더 투철한 장인정신과 빠아픈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¹⁵⁾

지역작가의 신작이 중앙작가의 검증된 작품과 경쟁하여 우수한 성적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예선대회와 본선대회라는 경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연속 <귀신고래(회유해변)> <사슴아 사슴아> <직지, 그 끝없는 인연>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역작가의 초연작으로 이룬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작가의 작품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3. 공연텍스트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국연극제의 참가작에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다. 25년의 시간동안 전국연극제가 지역연극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담당해 온 역할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전국연극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현실적 대안이 접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연텍스트인 회극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이제 전국연극제는 분명히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질적 향상 없이 현상에 만족하고 답보상태에 머문다면 머지않아 지역 연극은 문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 연극의 환경이 더욱 피폐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¹⁵⁾

이처럼 전국연극제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문다면 지역연극조차도 그 위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위기에 대한 도전보다 적당한 체념이나 타협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전국연극

15) 이필동, 「전국연극제 총평 - 수작이 없이 아쉬움으로 끝난 전국연극제」, 《한국연극》 2004.7.

16) 이필동, 위의 글.

제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필동은 지역연극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우리의 지방연극이 서울에 비하여 그 연원은 결코 짧지 않으면서도 서울연극에 비하여 아마추어리즘의 테두리를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지방연극이 독자의 성격을 붙들지 못하고 서울연극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 제 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레퍼터리의 빈곤이다. 희곡집이나 대본 구득난(求得難)에서 오는 문제이나 그에 앞서 자기극단과 지방관객에 맞는 <적절한> 레퍼터리를 선별해 낼 수 있는 지방연극인들의 안목의 부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어찌면 지방연극의 고질적인 문제인 나태와 타성과 불성실에서 오는 탓도 있다. ... 아마추어리즘다운 순수한 면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상호물신, 권위주의, 폐쇄주의가 지방연극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 그 밖의 관객수준의 문제, 행정당국의 이해부족, 사회 지도층의 후원부족, 공연장난, 연극인의 절대부족 등 부족의 사례를 들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¹⁷⁾

긴 인용문에서 다양한 지역연극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국연극제 창설을 앞두고 연극협회에서 주최한 지상 심포지엄에서 드러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전국연극제의 창설, 발전과 함께 해결될 것이란 낙관적 예측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제기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공연레퍼토리에 국한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리얼리즘극의 범주에서 머물러 연극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1, 2회에서는 12개 참가작 모두가 리얼리즘계열의 작품이었으며, 앞선 '연극제의 수준에 비하여 괄목할 만큼 진전을 보였다'¹⁸⁾고 평가된 제3회에는 12편의 작품이 참가하였는데 이 중 10편이 리얼리즘계열의 작품이었다. 제4회

17) 정진수, 「지방연극의 문제와 대책」, 《한국연극》 1982.8.

18) 차범석, 「지방연극의 문제와 진로」, 《한국연극》 1985.7.

도 역시 12편이 참가하였지만 상징성이 강한 〈서풍이 불어오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리얼리즘극이었다. 이후 리얼리즘극은 연극제의 주류가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리얼리즘적 흐름에 대해 유민영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지방연극이 극히 초기 형태의 리얼리즘으로 굳어져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방연극제를 다섯 번 치르는 동안 지난해만 제외하고 모두 최우수상을 정성적 작품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지방연극이 가야될 방향도 제시한 것이다. 지방연극은 아직 기반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실험보다는 정통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연극이 세계연극의 조류와 전혀 동떨어져서 19세기식의 리얼리즘만을 고수해서도 안된다. ... 당분간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해야 되겠지만 점차 세계연극의 조류에 귀를 기울여가야 할 것이다.¹⁹⁾

연극적 기초를 다지는 데는 리얼리즘극이 필요 배경이 되겠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도 참가작의 리얼리즘극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연극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중앙에서도 이미지극, 서사극, 부조리극, 상징주의극 등 반 사실주의적 공연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연극적 현실을 살펴도 전국연극제의 눈높이는 세계의 조류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리얼리즘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극제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대극장 중심의 경연대회라는 연극제의 기본 시스템은 다른 장르나 실험적인 작품이 참가하는데 제약이 된다. 또 수상을 위해서는 지역 관중과의 소통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 지역 관중의 민도를 고려하면 사실주의극의 소통성이 가장 용이하다. 지역 연극인들의 연극적 수준이 실험극이나 다양한 극적 시도를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극적 상상력이나 배우들의 신체훈련 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작품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둘째, 레퍼토리 선정에서 중앙작가의 구작이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앞 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분석된 문제이다.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참가 극단의

19) 유민영, 「연극 뿌리에 자양을」, 《한국연극》 1987.7.

입장에서는 위험부담 없이 이미 검증된 중앙작가의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길이다. 또 중앙에서 이미 공연된 작품의 연출이나 무대디자인, 심지어는 의상까지 그대로 모방하였음에도 지역예선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²⁰⁾ 이러한 점은 지역과 중앙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 없이 수상에만 급급한 지역 연극인들의 미시적이며 안이한 자세에도 원인이 있다. 지역연극의 내적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 희곡작가의 육성이라는 점은 이미 상식이지만 현실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쉽게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다.

셋째, 중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동적 수용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두 번째 문제점과 연관되어 있다. 전국연극제의 레퍼토리의 흐름을 살펴보면, 서울연극제의 흐름과 매우 유사한 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연극제에서 수상권에 들거나, 서울에서 주목받은 작품은 반드시 다음 해 전국연극제의 중심 레퍼토리가 되는 것이다. 지역 극단의 연극적 취향이나 현실적 상황, 연극적 능력 등에 대한 세심한 고민 없이 관심이 집중된 작품만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지역 연극인의 연극적 소양이 빈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는 작품선정은 지역극단 스스로 자신들의 연극적 정체성을 찾고, 그에 맞는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자해행위이다. 아무리 좋은 희곡도 잘 표현하지 못하면 실패이지만 부족한 희곡이라도 잘 표현되면 성공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전에 참가한 기성극의 경우는 어떤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제전에 기성극을 내놓을 경우, 거기에는 그 작품이 공연되는 「지금」의 시대적 맥락과 연계될 수 있는 시의성(Aktualitat)을 지녀야 하며, 또 이 작품이 기왕에 쌓아온 수용지평을 확대, 심화, 변이시킬 수 있는 측면을 지녀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또 작품 자체에 실험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에 공연의 가변성이 높

20) 필자가 몇 년 전 전국연극제에서 지역 예선을 통과하여 참가한 모 지역극단의 〈물고기남자〉(이강백 작)를 관람하였다. 그런데 그 공연이 서울의 극단 배우세상의 초연공연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다. 무대 디자인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동선이나 의상까지도 거의 흡사했다. 이러한 실례는 이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 않은 리얼리즘의 연극의 경우, 이 조건은 보다 엄중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²¹⁾

중앙작가의 작품을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시의성과 지역연극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지금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넷째, 일부 특정 작가의 작품에 편중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작가의 구작을 선택하는 것도 그 외연이 매우 협소하다. 25년간 2편 이상 공연된 중앙 작가군을 살펴보면 윤조병, 김상열, 이강백, 이재현, 최인훈, 노경식, 차범석, 윤대성, 이반, 이만희, 정복근, 황석영, 김광림, 조일도, 김태수, 엄인희, 오태영, 이근삼, 이윤택, 김태웅, 고연옥, 박근형, 오태석 총 23명에 불과하다. 이들 작품 중에서도 이만희의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엄인희의 〈작은 어머니〉, 김태수의 〈꽃마차는 달려간다〉 등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공연되어 작품의 편중현상 역시 심각하다.

다섯 째, 지역작가의 작품이란 점을 내세워 수준 미달의 작품이 공연되는 점이다. 물론 최근 3년간 지역작가의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지만 이는 지역작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을 내세워 최소한의 극적 완성도도 갖추지 못한 작품이 버젓이 공연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연극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이다.

B : 올해에 제기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작가의 신작희곡이 여섯 편이나 참가했지만, 수준작은 두세편에 불과했고, 나머지 두세편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수준미달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²²⁾

「지방작가의 희곡 공연 장려」가 무대화하기엔 너무나 결함이 많은 희곡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를 어쩌면 그렇게도 용감(?)하게 무시하고 있을까, 하고 놀랄 정도의 무대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²³⁾

21) 송전, 「지방연극의 비판적 전망」, 《한국연극》 1988.7.

22) 박조열, 「벽을 깨야 하는데」, 《한국연극》 1987.7.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지역작가의 신작에게만 작품료를 제공하는 지원제도와 지역연극계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일부 지역연극인의 연극에 대한 기초 소양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 지역작가의 작품이 사실주의 계열의 시대극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소재나 주제의 다양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향토연극이란 미명하에 복고취향이라는 시대착오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역작가에 의해 ‘경험으로서의 예술’²⁴⁾로 승화되어야 하는 향토연극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향토연극이란 ‘향토범주에 속하는 지역의 고유한 사물(事物) 즉, 풍토·풍물·정서·습관 그리고 역사를 예술적 시각으로 극화(劇化)하는 것’²⁵⁾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적 시각이다. 무조건 지역의 설화나 정서, 역사적 소재를 극화한다고 해서 모두 향토연극은 아니다. 단순한 설명이나 재현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를 함의하며, 드라마투르기에 의한 연극적 형상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김길수는 다음과 같이 향토연극 육성대책을 제시한다.

첫째로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의식과 잠재적 충동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도록 소재 및 극작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난해한 주제나 소재를 탈피하여 관객이 쉽게 동참하여 신바람나게 해주는 희곡작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로 볼거리나 들을거리에 대한 관객의 심미적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연출가적 탐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로 향토적인 멋, 가락 등을 창출시켜 나갈 수 있는 연출가적 기예가 탐구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지방 고유의 시사적인 문제점이 수렴되고 연극무대로 형상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객으로 하여금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제안과 해답을 표출시킬 수 있는 희곡 작품의 발굴이 시급하다.

23) 박조열, 「참가작품을 보고서」, 《한국연극》 1988.7.

24) 윤조병, 「근거리 시각과 원거리 시각의 균형」, 《한국연극》 1987.7.

25) 윤조병, 앞의 글.

여섯째로 자로 잰 듯한 규격화된 경연대회를 탈피하여 동시 다발적인 공연을 가능케 해주는 축제 형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극상 수상 작품 등이 의무적으로 지방순회공연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²⁶⁾

길게 인용했지만 중심은 희곡, 연출가, 관객 그리고 제도의 본질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현재에도 타당하다. 전국연극제가 가장 고려해야 할 대상은 지역관객이다. 중앙의 관객이 아니다. 그렇기에 전국연극제가 지연연극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축제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하고, 지역관객을 확보하며, 지역연극의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향토연극의 개발이 필요하다. 어설픈데 중앙연극의 아류에 머무는 한 지역연극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지역작가가 중앙작가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물론 작가로서의 기본 소양이 전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4. 나가는 글 - 발전적 대안의 모색

25년의 역사를 지내온 전국연극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연극을 활성화 하려는 초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시간의 의미만큼의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침체의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연극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역작가를 육성하고자 한 의도는 그 성과가 크지 않다.

전국연극제 참가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작가의 창작품 비중은 시간과 반비례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도 몇 몇 작품을 제외하면 중앙작가의 작품과 견줄 만한 작품이 없다. 그렇기에 중앙작가의 구작들이 공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정 작가와 특정 작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26) 김길수, 「향토극의 토착화를 위하여」, 《한국연극》 1987.7.

첫째, 진부한 리얼리즘극의 범주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둘째, 레퍼토리 선정에서 중앙작가의 구작이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동적 수용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넷째, 일부 특정 작가의 작품에 편중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지역작가의 작품이란 점을 내세워 수준 미달의 작품이 공연되는 점이다.

언급한 문제점이 지난 25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은 전국연극제 시스템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타하며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힘들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과 지역 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인재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연극적 변화와 모색이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연극도 중앙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중앙과의 공동기획 및 공연제작 등이 시도되어야 하고, 중앙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연극 워크숍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지역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순회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의 시대에 지역연극이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 변화에 동참하는 것, 거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변화의 의미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육성된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현실적, 행정적 제도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서 능력을 인정받더라도 현실적 어려움과 사회적 역할의 한계로 중앙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희곡작가의 경우, 중앙에서의 경제적 대우와 지역에서의 경제적 대우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쉽게 지역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인재가 지역을 위해 계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가육성 프로그램이나 희곡상 제정, 국내외 연수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지역작가의 소명의식을 키워야 한다.

셋째, 지역에 잠재된 향토적 소재나 주제의식의 개발로 향토연극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앞장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지역연극과 지역작가가 자생력

을 갖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향토연극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문화적 체험과 이해라는 예술적 이점이 있기에 지역작가에게 더 유리하다. 또 소재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도 향토연극은 우리 연극의 발전에 중요하다.

넷째, 리얼리즘·대극장 중심의 공연관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극적 시도가 장려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연극제가 의례 대극장에서 개최되기에 작가들은 대극장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창작하고, 그렇기에 리얼리즘극이 주류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중극장, 소극장으로까지 공연장이 확대된다면 대작이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규모보다 질에 대한 고민들이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25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경연방식이란 기본 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국연극제의 참가작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연극의 미래를 부정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땀 흘리며 지역연극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연극인들이 있다. 이들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기능을 전국연극제가 일차적으로 담당해 왔다. 그렇기에 전국연극제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전국연극제가 올해로 26회를 맞으면서도 아직 초기에 비판되었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창작의욕 고취라는 초기의 목표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더 자성해야 하겠다. 전국연극제의 발전을 위해 지역작가의 육성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한국연극》 1982년~2007년 전국연극제 관련 기사

전국연극제 프로그램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논문

강남운, 「전남연극사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국미경, 「전국연극제에 대한 분석적 연구 : 1983-2003」,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삼일, 「경북연극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상원, 「대구연극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전진기, 「전북연극사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최문선, 「서울연극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평론

김미혜, 「지역연극 활성화 주력할 때」, 《문화예술》 2001.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1.

김순자, 「빛과 감동을 찾아나선 제주 제19회 전국연극제」, 《문화예술》 2001.7, 한국문
화예술진흥원, 2001.

이근삼, 「성외와 열의로 빛어낸 잔치 한마당」, 《문화예술》 1995.12, 한국문화예술진흥
원, 1995.

이종원,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4회 전국연극제」, 《문화예술》 1996.8, 한국문화예술진
흥원, 1996.

임병호, 「한단계 발전된 지역연극 면모 보여준 전국연극제」, 《문화예술》 1994.7,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1994.

장정룡, 「고유의 전통 되살린 신명나는 축제되어야」, 《문화예술》 2002.7,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2002.

정봉석, 「2002 제20회 부산연극제 작품 총평」, 《예술부산》 V. 2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 2002.

한상철, 「제8회 전국연극제」, 《문화예술》 1990.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